Nature, Our Future!

덕유산 국립공원

DEOGYUSAN NATIONAL PARK

종합안내

종합안내

FSC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5555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063) 322-3174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덕유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입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1975년 2월 1일, 총 229.43㎢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며, 행정구역 상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2개도 4개군에 걸쳐있습니다. 높은 고도에 비해 완만한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볼 수 있고, 탐방코스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 연평균 17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중심부에 자리 잡은 덕유산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으로 해발 1,614m의 향적봉을 중심으로 1,300m 안팎의 장중한 능선이 남서쪽으로 30km에 달합니다.

아고산대의 특징을 보이는 1,500m 이상의 고지대가 많고, 금강과 낙동강의 수원지로 생태계의 보존가치가 높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야생화 군락과 낙엽수가 다채로운 색으로 장관을 이루며, 여름에는 무주구천동 계곡을 트래킹하고, 겨울에는 하얀 사슴불 모양으로 얽힌 상고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주구천동은 나제통문을 지나 36km에 걸친 덕유산 향적봉까지 기암괴석과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태고의 원시림으로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이 소(沼)와 담(潭)과 폭포가 되어 아름다운 절경을 이룹니다.

덕유산의 원래 명칭은 광여산(匡廬山)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전란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왜병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짙은 안개가 드리워 산 속에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전쟁의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광여산의 신비로움에 사람들은 큰 덕이 있는 산이라하여 큰 덕(德), 넉넉할 유(裕)자를 써서 덕유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올리고 많은 효력을 봤다고 하여 '덕이 많고 너그러운 산'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구비구비 흐르는 덕유산국립공원

경관자원

향적봉(香積峰)



높이 1,614m의 향적봉은 예로부터 은은한 향기가 그득히 쌓여 있는 봉우리라 일컬으며 그곳에 올라 삼남을 굽어보면 북으로 가깝게는 적상산이 있고 멀리 황악산, 계룡산이 보이며 서쪽은 운장산, 대둔산, 남쪽은 남덕유산을 앞에 두고 지리산 천왕봉과 반야봉이 보이며 동쪽으로는 가야산, 금오산이 보입니다. 고산식물인 주목이 군락을 이루며 철 따라 피어나는 진달래, 철쭉, 원추리와 겨울철의 설경이 일품입니다. 봄철이면 향적봉에서 덕유평전으로 이어지는 철쭉이 장관을 이룹니다.

적상산(赤裳山)



한국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적상산은 사면이 층암절벽으로 둘러싸여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면 마치 여인들의 치마와 같다고 하여 적상(赤裳)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산은 해발 1,034m의 기봉이 향로봉을 거느리고 천일폭포, 송대폭포, 장도바위, 장군바위, 안령대 등의 자연명소를 간직한 채 고색창연한 적상산성, 안국사 등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나제통문(羅濟通門)



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의 경계를 가로질러 암벽을 뚫고 길은 낸 작은 터널입니다.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나제통문의 높이는 3m, 길이는 10m로 통일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있어 두 나라가 국경 병참기지로 삼아 한반도 남부의 동서문화가 교류되었던 관문입니다.

구천동계곡

구천동계곡은 나제통문을 지나 향적봉까지 30.5km에 이릅니다. 기암괴석과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태고의 원시림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이, 소(沼)나 담(潭)과 폭포가 되어 우리나라 경승지중 아름다운 구천동 33경을 이룹니다.



칠연계곡

덕유산 능선의 동엽령 서쪽 골짜기에 위치한 칠연계곡은 맑은 찬물이 주변의 울창한 송림과 기암괴석 사이를 흘러가며 촬연폭포, 용추폭포, 명제소, 문덕소 등의 아름다운 비경을 만듭니다.



천일폭포(무주군 적상면)

천일폭포는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인 폭포라고 하여 '천일(天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5m가 넘는 절벽의 갈라진 틈 사이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주변의 수림과 어우러져 장쾌하면서도 시원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천폭포(무주군 설천면)

층암을 타고 쏟아지는 2단 폭포로 옛날 천상의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즐겨 놀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무주구천동 제28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화폭포(무주군 설천면)

백련담과 이속대를 잇는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계곡의 층층암반과 기암괴석에 부딪히며 이루는 폭포수와 물보라가 장관을 이룹니다.

용추폭포(무주군 안성면)

칠연계곡에서 맴돌던 물이 흘러내리다가 우거진 노송사이 층층바위 암벽을 타고 쏟아지는 비폭의 모습이 장관입니다.

천상의 화원 덕유산국립공원

생태자원

덕유산은 전형적인 산악지형으로 약 4,858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발 1,500m 이상의 아고산대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에는 천상의 화원이라 불릴 만큼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광릉요광꽃, 수달, 감돌고기 등 39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복수초
Adonis amurensis


너도바람꽃
Eranthis stellata


모데미풀
Megaleranthis saniculifolia


동의나물
Caltha palustris

복수초 깊은 산의 숲 속에서 자라는 복수초는 이른 봄에 얼음을 뚫고 나온다고 하여 봄을 부르는 꽃이라고 합니다. 줄기 끝에 한 송이의 노란색 꽃이 잎보다 먼저 피며, 지름은 3~4cm 정도입니다.

너도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서 식물체 높이는 8~15cm 내외입니다.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초봄 덕유산 계곡 변에서 물레 수줍게 꽃을 피우는 너도바람꽃은 식물체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려 꽃을 관찰해야 합니다.

모데미풀 높은 산의 계곡 주변이나 습기 있는 숲속에서 주로 자랍니다. 국내에만 자생하는 한국 고유종 식물입니다. 꽃의 크기는 2cm 정도이고 5월에 피며 꽃이 달리는 자루 밑에는 바늘 조각처럼 생긴 꽃덕잎이 달릴 뿐 다른 잎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의나물 뿌리는 희고 수염처럼 생겼으며, 꽃잎은 없지만 달걀형을 띤 타원 꽃받침이 꽃잎처럼 보입니다. 셋노란 꽃이 보통 4-5월에 피는데, 꽃이 진 후 열매 속에 씨가 맺힙니다. 나물이라는 이름과 달리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깃대종

국립공원에서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징적인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
Abies koreana, Korean fir


금강모치
Phoxinus kumgangensis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금강모치'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금강수계에서는 유일하게 물이 차고 물 속 산소가 풍부한 무주 구천동 계곡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 특산종으로 역유산의 구상나무 군락지는 생물분포의 북쪽 한계점을 뜻하는 북한계를 이루며 자생합니다. 구상나무는 기온 변화폭이 좁고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는 나무이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생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나무입니다.

어사 박문수가 다녀간 곳

구천동 어사길 탐방로

구천동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향적봉기(香積峯記)』라는 기행문에 구천명의 승려들이 수도하던 곳이라 기록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백련사까지 5km구간의 구천동 어사길은 덕유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지역 주민이 이용하던 길로 현재에도 과거 집터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유명한 암행어사였던 박문수가 구천동에서 자신의 위세만을 믿고 이웃 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벌하고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웠다고 하여 어사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활동의 거점이 되었던 역사적 공간입니다.



1 숲나들길

구천동어사길 초입~안월담

가벼운 마음으로 탐방할 수 있는 구천동 어사길의 첫 번째 구간입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소담하게 피어있는 야생화를 감상하며 걷다 보면 나들이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초, 진달래, 산수국 같은 야생화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계절별로 보여주며 구천동 어사길에 다양한 색을 선사합니다.

2 청렴길

안월담~구월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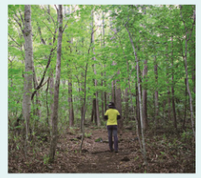
안월담에서 이어지는 구천동계곡을 걷노라면 울창한 산림 속에서 오롯이 자신을 마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시원한 물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바람소리에 귀기울이며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밈없는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걷는 계곡길입니다.

3 치유길

구월담~안심대

구월담은 아홉 개의 달빛이 비추는 못이라는 의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황홀감에 빠져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듯 아름다운 장관을 이룹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느끼고 청량한 계곡 소리를 듣고 걷다보면,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잊고 지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봄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의 편안함을, 가을에는 열매의 충만한 에너지를,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인 계곡의 절경을 보여줍니다.





4 하늘길

안심대~백련사

향적봉에서 흘러나온 맑고 깨끗한 구천동 계곡물과 덕유산의 울창한 숲속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로 건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길입니다. 덕유산의 주봉인 향적봉에 오르기 전, 가파른 오르막을 앞두고 숨을 가다듬는 곳으로, 맑은 물에 자신과 하늘을 비추며 속세에 얼룩진 심신을 가다듬는 명경담(明鏡潭), 속세와의 연을 끊고 깨우침을 얻는 이속대(離俗台)를 거쳐 하늘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아름다운 곳

구천동 33경

불교 전성기 구천동에 많은 사찰이 있어 구천 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구천동(九千洞), 구천둔(九千屯)이라고 전해집니다. 구천동의 구천 승려가 밥을 짓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쌀을 씻던 하얀 쌀뜨물이 구천계곡을 따라 온통 눈과 같이 하얗게 흘러내렸다 하여 눈 설(雪) 자와 내 천(川)자를 붙여 지명을 설천(雪川)이라 하였습니다. 무주구천동은 나제통문을 지나 36km에 걸친 덕유산 향적봉까지 기암괴석과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태고의 원시림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이, 소(沼)나 담(潭)과 폭포가 되어 우리나라 경승지 중 가장 아름다운 구천동 33경을 이룹니다.

16경 인월담(印月潭)



달을 새겨놓은 큰 연못이란 뜻으로, 굽이굽이 흘러온 구천동 계곡물이 넓은 반석위를 흘러가다 암반 위를 지나며 큰 담을 이룹니다.

19경 비파담(琵琶潭)



먼 옛날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하고 넓은 바위에 앉아 비파를 연주하고 놀았다고 하며 이름 붙여진 곳으로, 맑은 물이 바위를 흘러 내려온 모양이 비파를 닮았다하여 비파담이라고 합니다.

21경 구월담(九月潭)



아홉 개의 달빛이 비치는 못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계곡물이 동시에 여러개의 크고 작은 못들을 만듭니다. 그 위에 밤이 되면 각각 달빛이 반사되면서 아홉 개의 못에 아홉개의 달이 비추는 황홀함을 만든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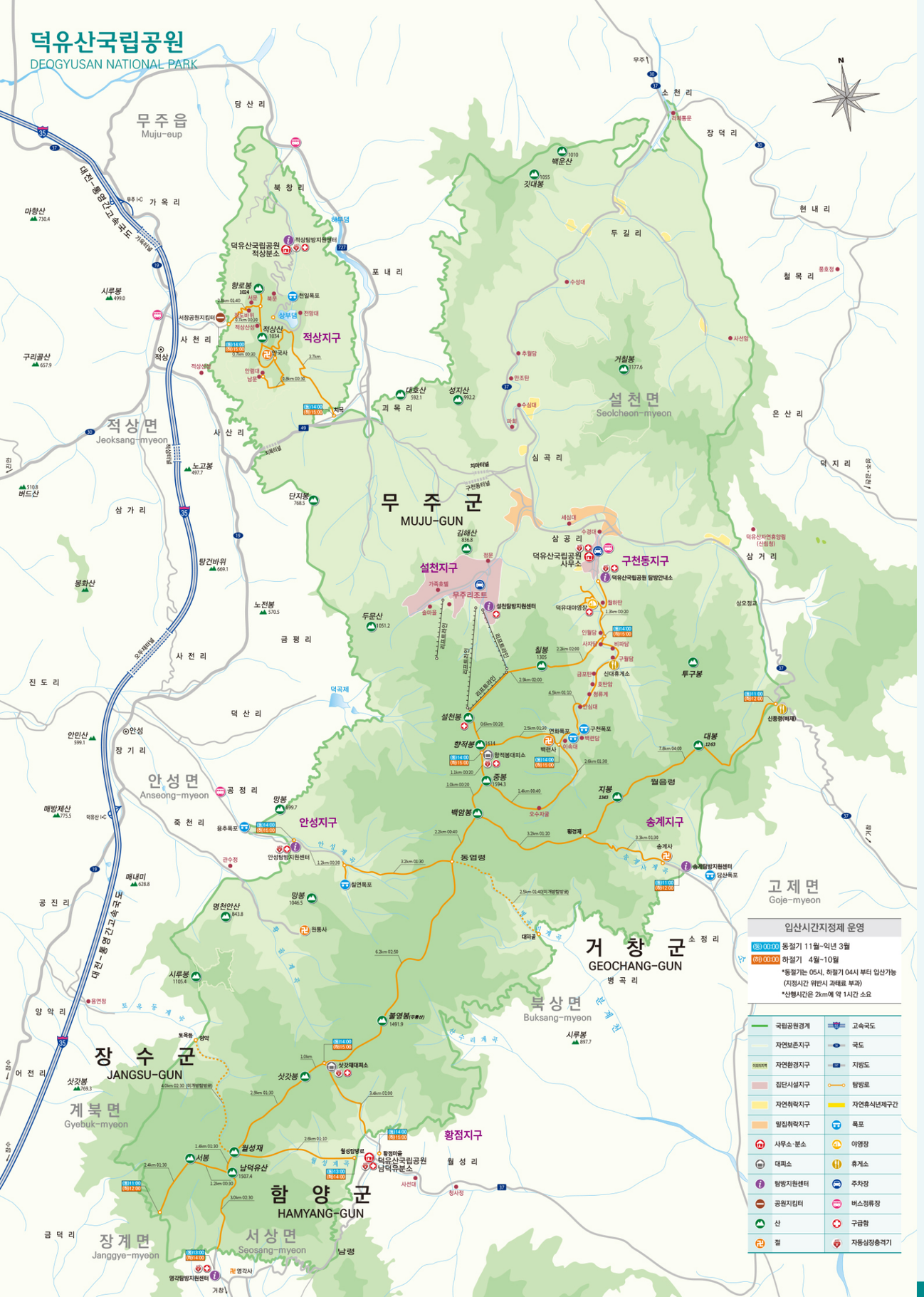
25경 안심대(安心臺)



안심대는 옛날 구천동과 백련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계곡을 건너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계곡물을 건너가면서 세상의 온갖 잡념을 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여 안심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
DEOGYUSAN NATIONAL PARK



입산시간지정제 운영

(동) 00:00	동절기 11월~익년 3월
(하) 00:00	하절기 4월~10월

*동절기는 05시, 하절기 04시 부터 입산가능
(지정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산행시간은 2km에 약 1시간 소요

국립공원경계	고속국도
자연보존지구	국도
자연환경지구	지방도
집단시설지구	탐방로
자연취락지구	자연휴식년제구간
일집취락지구	폭포
사무소·분소	야영장
대피소	휴게소
탐방지원센터	주차장
공원지킴터	버스정류장
산	구급함
절	자동심장충격기

사계절 즐거움이 가득한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코스

덕유산을 한걸음에 내딛는 여유

덕유산 종주 코스

구간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향적봉-삿갓재-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편도 26.9㎞ 시간 약 14시간 소요 난이도 ●●●●○

덕유산 종주 코스는 능선을 따라 덕유산의 주요 산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덕유산의 상징인 주목과 한국의 특산식물인 구상나무, 아고산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는 원추리군락과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종주 코스는 중·상급자를 위한 코스로 26.9㎞이며, 약 14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일 종주보다는 1박 2일 산행코스로 추천하며 산행계획 시 기상여건 등을 고려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덕유산 능선


향적봉 대피소

있는 그대로의 덕유를 만나다

향적봉 2코스

구간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인월담-백련사-향적봉
편도 8.5㎞ 시간 약 3시간 소요 난이도 ●●●○○

향적봉 2코스는 구천동계곡의 싱그러운 신록과 덕유산의 다양한 명소들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탐방로 주변에 다양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월하탄, 비파담, 구천폭포 등의 절경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또한 계곡의 물이 깨끗하고 차가워 금강수계에서는 유일하게 금강모치(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련사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이용한 탐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토, 일 공휴일 및 여름 성수기에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무주봉 억새


비파담

겨울의 금강산 개골산을 만나다

남덕유산 코스

구간 영각탐방지원센터-남덕유산
편도 3.6㎞ 시간 약 2시간 30분 소요 난이도 ●●●●○

남덕유산 코스는 경남 거창군 북상면, 함양군, 서상면, 전북 장수군 장계면의 경계지역으로, 남쪽에 위치한 최고봉이 1,507m이며 지형이 험준하고 겨울철 설경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겨울의 금강산인 개골산으로 불릴 만큼 겨울의 정취가 황홀하고 아름다운 코스지만, 전체적으로 탐방로는 가파르고 험준합니다. 정상 부근의 계단은 경사가 급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덕유산 향적봉에서 본 설경


남덕유산

물 따라, 마음 따라, 삶의 순간을 치유하다

삿갓재 코스

구간 황점마을-황점탐방로-삿갓재
편도 3.4㎞ 시간 약 1시간 20분 소요 난이도 ●●●○○

삿갓재 코스는 백두대간 능선부에 위치한 삿갓재 대피소를 탐방하는 최단 시간 코스입니다. 대부분 당일 산행을 많이 하나 덕유산의 최고봉인 향적봉이나 남덕유산까지의 여정을 계획할 경우에는 삿갓재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삿갓재 코스는 탐방로는 따라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물소리를 들으며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는 초입부터 중간 지점까지는 완만한 오르막이지만 이후에는 가파른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삿갓재 대피소에서 바라본 풍경지


삿갓재대피소

덕유산을 만나는 기쁨

향적봉 1코스

구간 설천봉-향적봉
편도 0.6㎞ 시간 약 20분 소요 난이도 ●●○○○

향적봉 1코스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관광 곤돌라를 이용하여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1,614m)을 넘너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입니다. 겨울에는 상고대와 설경,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군락이 아름다우며 다양한 아고산대 야생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덕유산의 최고봉을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탐방할 수 있어서 연간 약 7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습니다. 기상특보 시에는 운행을 중단하므로 반드시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문의해야 합니다.


향적봉 가는 길


곤돌라

최영 장군의 기개를 만나다

서창 코스

구간 서창공원지킴터-청로봉삼거리-안국사
편도 3.8㎞ 시간 약 2시간 소요 난이도 ●●○○○

서창 코스는 적상산성과 안국사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가족 단위의 탐방객이 많이 찾습니다. 서창공원지킴터에서 약 1시간 정도 오르면 최영 장군이 말을 타고 가다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 칼로 베고 지나갔다는 장도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도바위를 지나 적상산성 서문까지는 오르막이고 서문부터 완만합니다. 향로봉 삼거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안국사를 탐방할 수 있고, 좌측으로 가면 향로봉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적상산성


안국사

거창의 소금강을 따라 콧노래를 부르다

월성재 코스

구간 월성탐방로-월성재
편도 3.6㎞ 시간 약 1시간 50분 소요 난이도 ●●●○○

월성재 코스는 신이 높고 골이 깊기로 유명하며, 거창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성계곡에서 월성재까지가 이어진 코스입니다. 비교적 쉬운 코스이며 겨울철에 설경이 아름다워 겨울 산행을 즐기는 탐방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특히 월성재는 계곡에서 모인 물들이 소를 이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며 귀를 청아하게 하는 물소리가 매력적입니다.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로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월성계곡

하늘 아래 못 볼 곳이 없어라

오수자굴 코스

구간 백련사-오수자굴-중봉
편도 4.2㎞ 시간 약 2시간 소요 난이도 ●●○○○

백련사에서 오수자굴, 중봉까지 이어지는 탐방 코스이며, 완만한 경사로 산행이 가능합니다. 중봉에 펼쳐진 덕유평전에는 봄철은 철쭉과 진달래군락, 여름에는 원추리군락이 장관입니다. 계절마다 새롭게 피는 야생화와 덕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탐방코스입니다. 중봉에서는 지리산 자락이 보여 찾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넓은 조망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겨울철 오수자굴에서는 거꾸로 자라는 고드름을 볼 수 있습니다.


중봉의 여름


오수자굴

폭포소리 따라가다 선인의 정취를 만나다

동엽령 코스

구간 안성탐방지원센터-칠연폭포삼거리-동엽령
편도 4.4㎞ 시간 약 2시간 소요 난이도 ●●○○○

동엽령 코스는 의병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칠연의총이 있는 탐방 코스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넘나들던 옛 선인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엽령을 기기 전에 우측으로 청류가 흐르는 칠연계곡을 따라 함지박 모양의 소(沼) 일곱 개가 연달아 있으며, 소(沼)와 소(沼)사이는 완만한 폭포를 이루어 맑은 물이 흐르는 칠연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칠연폭포에서는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로가 없으니 반드시 칠연폭포 삼거리부터 산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동엽령의 여정


칠연의총

백두대간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다

황경재 코스

구간 송계탐방지원센터-황경재-송계삼거리
편도 6.2㎞ 시간 약 3시간 소요 난이도 ●●●○○

울창한 숲길과 시원한 계곡을 따라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황경재 코스는 덕유산국립공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신록과 상쾌함을 주는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덕유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송계사에서 백두대간 능선인 송계삼거리(백암봉)까지 오르게 됩니다. 코스 중간 지점까지는 완만한 오르막이며, 송계삼거리(백암봉)까지 약 3.2km 구간은 다소 경사가 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송계계곡과 울창한 숲길을 걷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송계계곡


송계사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목 코스

구간 치목-송대폭포-안국사
편도 3.7㎞ 시간 약 2시간 소요 난이도 ●●○○○

치목 코스는 아름드리 편백의 향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으며 가을철 단풍이 일품입니다. 산행을 시작하는 치목마을은 적상산 동남쪽 양지바른 곳에 있고,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우뚝 솟은 단지봉과 그 주변의 울창한 수림이 풍치를 이룬다고 하여 치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송대 주변으로 아름드리 편백이 어우러져 향긋한 내음과 바위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송대폭포


안국사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다

신풍령 코스

구간 신풍령-황경재
편도 7.8㎞ 시간 약 4시간 소요 난이도 ●●●●○

신풍령 코스는 덕유산 백두대간 구간의 북쪽 지역이며, 전라북도 무주군과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계면에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신봉우리를 넘게 되므로 장거리 산행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탐방 코스입니다. 탐방로가 매우 가파르고 험준하므로 철저한 탐방 준비가 필요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탐방객들을 충분히 매료시킬 만한 코스입니다.


주목군락